____월 ____일

다음 문장을 소리 내어 읽은 뒤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. 그리고 외워 보세요.

모리스 마테를링크, 『꽃의 지혜』

출처: arte

꽃이 당신처럼 살아가는데, 당신의 삶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지 않겠습니까?

김성호 · 박수진 · 윤제균, 『국제시장』

출처: 21세기북스

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힘든 세월에 태어나서, 힘든 세상 풍파를
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.

장대익, 『울트라 소셜』

출처: 조선일보 2017년 6월 19일

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은가? 그렇다면 그 사람의 동공을 보라.

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.